가을 한파 농작물 피해대책 마련 약속

도의회 의원들, 진안 배추농가 찾아

"신속한 피해조사·보상 건의할 것"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1)과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김제2), 이한기 의원(진안)은 1일 지난달 한파로 피해를 입은 진안 배추농가를 찾아 철저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노남식씨는 "지난달 초에 한여름처럼 더웠던 날씨가 중순 무렵에는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8,313㎡ 밭에 심은 배춧잎이 누렇게 변하고 잘 여물지도 않아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송 의장은 "농작물 생육기 초반에는 기상 여건 등이 좋아 농가들의 기대감이 컸는데, 가을장마와 때 이른 한파 등으로 피해를 보게 돼 안타깝다"며 "한숨이 깊어가는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조사와 보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더 잦은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농작물 재배와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상이변에 견딜 수 있는 신품종 개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인권 의원과 이한기 의원은 "노지 배추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아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다"면서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북도 차원에서 피해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10월 한 달간 도내 농가 550곳에서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사과가 237.1ha로 가장 많았고, 배추 87.8ha, 상추·고추 순이다.

한파 피해는 지대가 높고 산지로 둘러싸여 기습 한파 당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진안과 장수, 무주, 남원 등 동부권 시·군에 집중됐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1)과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김제2), 이한기 의원(진안)은 1일 지난달 한파로 피해를 입은 진안 배추 농가를 찾아 철저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1일 '청년에게 배우다'를 통해 ㈜블레스미를 방문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정책 마련"

조지훈 전 경진원장, 블레스미 방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1일 '청년에게 배우다'를 통해 ㈜블레스미(대표이사 이용진)를 방문했다. '청년에게 배우다'는 전주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청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청년이 머무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찾고자 지난 4월부터 기획·시작했다.

현재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 구석구석을 누비는 것과 별개로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인 청년의 목소리에 집중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청년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블레스미는 다양한 콘텐츠와 제작 노하우를 접목한 라이브커머스 전문업체다.

특히, 급변하는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소비자를 위한 촬영 환경에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이용진 대표이사를 만나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현주소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야 만 살아남을 수 있다. 판로 개척 방식도 마찬가지로,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적극 진입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해야 한다"며 "이제 온라인 마케팅은 필수인 만큼 소상공인들도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훈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소비트렌드가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 이는 위드 코로나시대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도의회 환경복지위 의정발전자문위 개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주관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환경, 복지, 새만금 분야로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곽동희 교수, 전주·완주 산림조합 임필환 조합장, 대자인병원 이병관 원장, 전주비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나림 교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주형 교수,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설경원 교수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탄소중립 현황 및 대응 방향, 아동 학대 예방, 위드코로나 이후 전북도 대응 방향,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명연 환복위원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들께서 도민을 대신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위원회에 제시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전북도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국가예산 반영 건의 전북도가 지난주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도 지휘부의 국회 상임위 대상 전방위 활동을 펼친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예결위를 타깃으로 집중 공략에 나선 가운데, 1일 신원식 정무부지사가 국회 예결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만나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국가·지자체 '습지 통합 관리 의무' 명문화

윤준병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 강화 도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일 국가와 지자체가 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법률로써 의무를 부여해 습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지질학적, 해양학적, 기후학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세계유산 등재는 자부심만큼이나, 보전·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일 뿐 아니라, '지구의 콩팥'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기후변화를 늦추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처럼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책임이자 의무이며,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재 국가 습지 관리는 환경부가 내륙습지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연안습지에 대해 각각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해 보전·관리 중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습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명문화됐지만, 향후 부처별로 나뉜 습지관리를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습지 관리·보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추진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등으로 대상으로 일자별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선전 의원과 부위원장에 박윤정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선전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위원들과 함께 예산과 복지 등 시정 모든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신영대 의원 "군산 학생 학습환경 개선 기대"

군산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5,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는 사업은 모두 3건으로, 군산서해초등학교 창호 교체공사에 7억 9,300만 원, 군산풍문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에 5억 6,700만 원, 군산비다유치원 창호 교체공사에 2억 9,500만 원 등이다.

군산풍문초 본관동 화장실은 증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탓에 배관 노후 및 부식에 따른 천장 누수와 악취는 물론 세면대, 변기, 문 등 파손된 부분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군산비다유치원과 군산서해초는 창호 노후화로 인해 단열 성능이 떨어져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 등에 적정한 실내 교육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지난 1994년 개교한 군산서해초의 경우는 창호 뒤틀림으로 인한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신 의원은 "특별교부금 확보로 학생들의 열악한 학습환경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이학수 전 도의원, 국무총리 자문위원 위촉

이학수 전 도의원이 국무총리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18일, 국정운영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은 경제, 사회, 방역, 문화 산업, 노동, 국민소통, 정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위드코로나를 진행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지역, 세대, 계층 등의 불평등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전 도의원은 지난 8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보좌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돼 활동 중에 있으며, 이번 자문위원 위촉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의 전문성을 인정받음은 물론, 현장의 의견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학수 전 도의원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졌다"면서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우리 도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학수 전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조직특보로 활동하면서 경선승리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통합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재선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농산업경제위원장을 역임한 이학수 전 도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대책위원회의 조직특보 경력을 통해 중앙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뛰어든다면 내년 정읍시장 선거에 미칠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호상기자·정읍=김대환기자

양성빈 전 도의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촉구

양성빈 전 도의원이 공익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양 전 도의원에 따르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인 공익직불제가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그런데, 시행 초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며, 최근 국회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에 의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한정하면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발생했는데 양성빈 전 도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실례로 ▲임차 농지의 경우 임차자가 자주 변동되는 과정에서 미신청, ▲건강 또는 요양 등 장기 부재로 인해 미신청, ▲연세가 많으신 농가들이 직불제를 인지 못 해 미신청, ▲모든 신청을 일임하는 마을 이장의 누락 실수, ▲정보가 부족한 귀농·귀촌인, ▲공동재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들을 언급했다. /유호상기자